

# 조선시대 궁중 원삼의 신분별 색상 연구

박 현 정<sup>†</sup>

전주대학교 패션산업전공

## Color Rank System of the Court Wonsam of Joseon Dynasty

Hyun-Jung Park<sup>†</sup>

Dept. of Fashion Business, Jeonju University

접수일(2009년 3월 13일), 수정일(1차 : 2009년 6월 1일, 완료일 : 2009년 7월 10일), 게재확정일(2009년 7월 28일)

###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olor rank system of the Wonsam, ceremonial topcoat, worn as a court formal costume of the Joseon dynasty by analyzing the court costume system and the actual examples of wearing. The research shows that there were some discrepancies of the color rank of the Wonsam between the court costume system and the actual wearing examples. There were red, purple, blue, green, and black Wonsam in the Joseon dynasty. The color rank of the Wonsam is as follows: the Queen's color was red, the Crown Princess's was green and purple, the royal concubine's was usually green and blue, but they could wear purple when they won the King's favor. A prince's wife's was usually green, but she wore blue and purple if she became the mother of the King. The princess's was green, and the court lady's was green, blue, and black. In most cases, the textiles of Wonsam were made by silk with patterns, even though Joseon dynasty was ordered to use silks without patterns in court weddings and funeral ceremonies to avoid extravagance.

**Key words:** Color rank system, Court, Wonsam, Joseon dynasty; 신분별 색상, 궁중, 원삼, 조선

### I. 서 론

圓衫은 현대까지 착용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 전통복식의 하나로서 정확한 고증에 의한 개념 정립이 요구된다. 특히 신분에 따른 원삼의 색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어 왔으나 연구자마다 신분체계 설정이 달라 혼동이 있었다. 이는 조선 왕실, 대한제국 황실, 일제강점기 이왕가 등의 국가체제를 구분하지 않거나 각 왕실의 신분체계 설정이 정확하지 않음에서 야기되었다. 최근 대한제국 황실과 일제강점기 이왕가에 대해 새롭게 조명되고 있으므로 왕실 의례복인 원삼 연구에 있어서도 각 국가체제에 따른 신분체계를 고

려한 새로운 색 체계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궁중 원삼의 색 체계 확립을 위해 조선시대 신분별 원삼 제도 및 실제 착용 기록을 살펴볼 것이며 단순한 제도 고찰에 그치지 않고 원삼 착용 인물 관찰을 병행함으로써 사실관계에 의거하여 원삼 색 체계의 실체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원삼의 제도와 착용 실례를 함께 비교 고찰하는 과정에서 조선시대 궁중 의례복 제도와 실제 시행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규정보다 넓은 신분에게 확대 착용되었던 의례복 원삼의 착용 범위, 그리고 규정과 달리 고급소재를 사용하였던 조선왕실 복식문화의 화려했던 실상을 실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다만 궁중 원삼의 신분별 색 체계에 중점을 두었으며 원삼의 기원 문제는 논외로 하였다.

<sup>†</sup>Corresponding author

E-mail: phjphj4@hanmail.net

## II.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원삼은 조선시대 궁중 여자 의례복의 하나로서 초기 한국복식사 교재에서부터 다루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저고리와 치마 위에 입는 의례적 성격을 갖는 袍개념의 옷을 의례복이라 칭한다. 유희경(1975)은 ‘王妃의 圓衫은 자적색 또는 다홍색 길’이라고 한 데 이어 ‘宮中女服에 있어서는 皇后의 黃圓衫, 王妃의 紅圓衫, 妃嬪의 紫赤圓衫, 公主·翁主의 草綠圓衫이 있었는데’라고도 하였다. 조선시대와 대한제국시대를 통틀어 원삼의 색 체계를 제시하였으나 왕비 원삼을 ‘자적색 또는 다홍색’이라고 했다가 다시 ‘홍색’이라고 하고, 신분 구분도 ‘왕비’와 ‘비빈’ 등 혼동이 있었다. 이 색 체계는 후속 교재 및 연구들에서도 큰 틀은 바뀌지 않고 유지되어 왔으나 연구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보인다. 고광림(1976)은 ‘조선시대에는 세자빈은 녹색, 숙의는 아청색 원삼’이라고 하여 처음으로 아청색 원삼을 제시하였으며 ‘광무년에는 皇后는 黃圓衫, 皇太子妃는 紅圓衫, 妃嬪은 紫赤圓衫, 公·翁主는 草綠圓衫를 입게 되었다’고 하여 조선시대와 대한제국을 구분하였으나 각각의 신분체계가 소략되어 있다. 고복남(1986)은 원삼의 착용자 및 용도에 대해 『國婚定例』에 의하여 ‘빈궁의 의대’였던 것이 말기에는 『禮服』 제도에 의하여 ‘왕비·왕세자비·왕세손비 등의 小禮服, 대군비·왕자비·공비·관직자부인 등의 大禮服’이라고 하였으며 색 체계에 대해서는 ‘大妃는 황색, 中宮은 홍색, 嬪宮은 녹색’이라고 하였다. 말기 신분체계는 일제강점기 이왕가 신분체계를 명시한 반면 색 체계에 있어서는 대비, 중궁, 빈궁으로 신분을 제한하였다. 이상의 신분 구분은 조선왕조 왕실, 대한제국 황실, 일제강점기 이왕가의 신분체계가 시대구분없이 섞여있어 혼동이 야기된다. 한편 박성실(2006)은 대한제국 시대 원삼의 색 체계에 대해 ‘황후 황원삼, 황태자비 홍원삼, 공비 녹색원삼으로 구분되었다’고 하였는데 황후와 황태자비는 대한제국의 신분인 반면 공비는 1910년 대한제국을 강제합병한 일제에 의해 받은 작위로서 신분 구분에서 시대적 경계가 불분명하다. 유희경 외(2001)에서도 ‘황후는 황원삼, 조선의 왕비와 대한제국의 황태자비는 홍원삼, 조선시대 후궁에서 올라온 빈궁의 자적원삼, 응주의 두록원삼’으로 정리하여 조선시대와 대한제국을 아우르는 색 체계를 시도했으나 조선 세자빈의 초록원삼, 숙의의 아청색 원삼 등이 누락되었다.

이와 같이 연구자에 따라 신분체계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내용이 소략 또는 누락되어 있음에 따라 조선시대부터 대한제국시대를 거쳐 일제강점기까지 왕실 의례복으로서의 원삼 제도에 대해 신분별 색상을 고찰함으로써 원삼의 색 체계를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다만 지면관계상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만을 다루기로 하며, 연구범위는 조선시대 궁중 의례복으로서의 원삼으로 제한한다.

조선시대 궁중 의례복 제도 및 행사 복식으로 등장한 원삼 기록을 착용자 신분별로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문헌자료는 다음과 같다. 1627년부터 1882년까지 왕비와 왕세자빈의 가례를 기록한 『嘉禮都監儀軌』, 1632년부터 1895년까지 왕비와 왕세자빈의 장례 과정을 기록한 『國葬都監儀軌』 및 『禮葬都監儀軌』와 시신을 모시는 빈전도감과 혼백을 모시는 혼전도감에서 한 일을 기록한 『殯殿魂殿都監儀軌』 및 『殯宮魂宮都監儀軌』, 1749년 영조의 명으로 국혼에 관한 규례를 편찬 기록한 『國婚定例』와 1750년 상의원에서 편찬한 궁중 의복관계 기록인 『尙方定例』, 1811년 왕대비전, 중궁전, 혜경궁 각 전의 행차 규정을 기록한 『各殿宮動駕儀節』, 『進宴儀軌』를 비롯한 궁중의 각종 연향 관련 의례, 1847년 헌종 후궁 경빈김씨의 가례 물목을 정리한 『憲宗妃慶嬪金氏順和宮嘉禮時節次』, 1772년 『淸瑾縣主嘉禮儀軌』, 1817년 『明溫公主嘉禮瞻錄』, 1833년 『明溫公主房喪葬禮瞻錄』, 1870년 『吉禮要覽』, 1893년 『義和君嘉禮瞻錄』, 그리고 국말 국혼과 명절 등에 소요된 물품목록 문서인 발기류가 있다. 발기는 착용자 신분을 알 수 있는 자료 중심으로 보았으며,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1987년에 정리한 『장서각이왕실고문서목록』 분류와 이명은(2003) 분류를 함께 참고하였다. 시대 범위는 벗어나지만 해당 원삼을 실제로 착용한 시기는 조선시대로 보이는 1898년 여흥부대부인 민씨의 장례 기록 『禮葬廳瞻錄』과 1907년 헌종 후궁 경빈김씨의 상장례 기록 『慶嬪禮葬所瞻錄』도 포함시켰다. 이상, 발기를 제외한 모든 문헌자료는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이며, 발기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발행한 『고문서집성』과 마이크로필름을 확인하였다. 그 외 『朝鮮王朝實錄』, 개인문집류, 그리고 현존하는 궁중 원삼 유물을 참고 서술하는 방식으로 논의하겠다. 본 연구는 궁중 의례복으로서의 원삼으로 범위를 제한함에 따라 이단하부인 원삼을 비롯한 사대부가 원삼은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III. 조선시대 궁중 여성의 신분체계

원삼의 신분별 색 체계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궁중 여성의 신분체계를 설정해야 한다. 궁중 여성은 왕비, 세자빈, 내명부, 외명부로 구성된다. 첫 번째로 품계를 초월한 지위로서 내명부를 다스리는 권한을 가진 왕비의 원삼에 대해 고찰한다. 두 번째로 역시 무품의 지위에 있으며 장차 왕비가 될 세자빈의 원삼에 대해 고찰한다. 내명부 제도는 태조, 태종, 세종 3대에 걸친 제도를 취사선택하여 성종 때 『경국대전』에 제도화되었다. 『경국대전』 내명부 품계 중, 정1품 빈부터 종4품 숙원까지는 왕의 후궁에 해당한다(이영숙, 1982). 조선시대 후궁은 왕비나 세자빈과 마찬가지로 가례색을 설치하고 간택을 거쳐 선발된 정식 후궁과 왕의 눈에 띄어 승은하게 된 승은 후궁으로 구분되었으나 후기에 들어서면서 후궁 간택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신명호, 2005b). 세 번째로는 후궁의 원삼에 대해 고찰한다. 한편 외명부에는 왕의 유모, 왕비의 모, 종친의 처, 왕과 왕세자의 딸, 문무관의 처 등이 해당된다. 왕의 본부인인 왕비에게서 출생한 아들은 대군, 후궁에게서 출생한 아들은 군으로 봉작되며 대군의 처는 부부인, 군의 처는 군부인으로 봉작된다(신명호, 1999). 한편 종친인 대군과 군은 무품이지만 종친의 처는 품계가 있어 부부인은 정1품, 군부인은 정1품~종1품에 해당한다. 네 번째로 종친 처의 원삼에 대해 고찰한다. 『경국대전』 외명부에 의하면 왕의 적녀는 공주, 서녀는 옹주에, 왕세자의 적녀는 군주, 서녀는 현주에 봉작된다. 공주와 옹주는 무품이었으나 군주는 정2품, 현주는 정3품이었다. 다섯 번째로 왕과 왕세자 딸의 원삼에 대해 고찰한다. 또한 『경국대전』 내명부 품계 중, 정5품부터 종9품까지는 상궁층에 속하며, 이들 밑에는 또 품계 없이 잡역을 맡고 있는 무수리 등의 하층 궁인이 있다(이영숙, 1982). 이들은 궁중 행사 때마다 각각의 역할에 따라 명칭이 부여되지만 이 직함은 행사 진행을 위한 것으로 행사가 끝나면서 없어지며 통상적으로 모든 궁녀들의 명칭은 ‘內人’이라고 했다(신명호, 2005a). 마지막으로 이 내인들의 원삼에 대해 고찰한다. 외명부의 또 다른 구성원이었던 문무관 처는 일상 생활공간이 궁중이 아니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한다. 이상의 논의 순서는 『국혼정례』의 목차 순서와도 동일하며 여기에 내인만 추가한 것이다.

### IV. 조선시대 궁중 신분별 원삼의 색

#### 1. 왕비

조선시대 왕비의 의례복 종류는 가례와 상장례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가례 때 의례복으로는 仁祖莊烈后 가례(1638)부터 高宗明聖后 가례(1866)까지 『가례도감의궤』를 비롯하여 『국혼정례』, 『상방정례』에 의해 翟衣, 露衣, 長衫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국혼정례』에 의하면 ‘大紅鄉職翟衣, 大紅鄉職胸背金圓紋露衣, 大紅鄉職胸背袂長衫’이 그것이다. 한편 상장례 때 의례복은 『국장도감의궤』, 『빈전혼전도감의궤』를 통해 알 수 있다. 상장례 관련 의궤에서는 선조 때의 의궤와 그 이후의 의궤의 기록이 다르게 나타난다. 즉 선조 이후의 상장례 관련 의궤에서는 의례복으로는 長衫만 보이는 것과 달리 『宣祖妃仁穆后國葬都監儀軌』에는 的衣, 露衣, 唐衣, 長衫이, 『懿仁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에는 長衫과 圓衫이 기록되어 있다(박성실, 1992). 특히 1600년 『의인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는 왕비 원삼의 최초 기록인 동시에 궁중 원삼의 최초 기록이다. 선조의 첫 번째 왕비 의인왕후 박씨는 1569년 왕비로 책봉되고 가례를 올렸으며 1600년 6월 사망하였다(선조33년 6월 27일 무술).

조선시대 원삼은 여자의 장례용으로 사용되었다. 선조시대 살았던 신독재의 『愼獨齋全書』에 여자의 장례 제도에 대한 문답 내용 중 “우리나라에서는 원삼에 대대로 습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여 당시 원삼이 습의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의인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에서 원삼은 습의가 아닌 ‘외재공소용’ 품목 중에 포함되어 있다. 의궤의 내용순서를 살펴보면 장례 절차에 따라 復, 沐浴, 襲 각각의 內用衣櫛와 外備衣櫛, 小殮의 內用衣櫛와 外備衣櫛, 大斂의 內用衣櫛와 外備衣櫛 다음에 外梓宮所用이 나온다. 이덕일(2005)에 의하면 재궁이란 그 자체가 하나의 궁이라는 뜻으로 왕 또는 왕비의 시신을 가리키기도 하고 시신을 모신 관을 말하기도 한다. 『의인왕후빈전도감의궤』의 논의과정에서 재궁이 커서 채울 수 없음을 염려하는 논의가 있었던 것(이궁익, 1736-1806/1997)으로 보아, 외재공소용으로 사용된 원삼은 관 속 대렴한 시신 위쪽 공간에 놓인 보공용 의복이라고 생각된다. 의인왕후의 외재공 의대로 사용된 원삼은 홍색으로 大紅廣紗 元衫이었다(표 1). 한자 표기에 있어서 元衫이 圓衫과 동일한가의 문제는 현종 후궁 경빈김씨 가례 기록에서 확인된

<표 1> 조선 왕비 원삼

시 대	문 헌	착용자	의 례	내 용
1600	懿仁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의인왕후	상장례	外梓宮所用 : 大紅廣紗 元衫 壹

다. 『헌종비경빈김씨순화궁가례시절차』와 발기 『其他 127』은 동일인물의 동일행사 복식이 각각 한문과 한자로 기록되어 있으며 원삼의 한자는 ‘元衫’으로 되어 있다.

2. 왕세자빈

조선시대 왕세자빈의 의례복 종류 역시 가례와 상장례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례 때 의례복은 顯宗明聖后 가례(1651)부터 純宗純明后 가례(1882)까지 『가례도감의궤』를 비롯하여, 『국혼정례』, 『상방정례』에 의해 翟衣, 露衣, 長衫, 圓衫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국혼정례』에 의하면 鴉青鄉織翟衣, 大紅鄉織金圓紋露衣, 大紅鄉織胸背袂長衫, 草綠廣의圓衫이 그것이다. 한편 상장례 때 의례복은 『예장도감의궤』, 『빈궁혼궁도감의궤』를 통해 장삼이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즉 왕세자빈은 가례 때 의례복으로 원삼을 착용하였는데 『가례도감의궤』에 나타난 왕세자빈의 원삼 색은 모두 草綠色으로 경종단의후(1696)까지는 雲紋匹緞이었다가 경종선의후(1718)와 진종효순후(1727)는 花紋匹緞으로 바뀌었으며, 문조신정후(1819)와 순종순명후(1882)는 禾花紬로 바뀌었다. 안감은 모두 木紅絹를 대었다. 『국혼정례』와 『상방정례』에 나타난 왕세자빈의 원삼 역시 草綠色으로 草綠廣의圓衫에 안감은 木紅絹를 대었다.

조선의 마지막 왕인 순종은 왕세자 시절인 1882년 1월 20일에 관례를 행한 후 1882년 2월 21일에 첫 번째 왕세자빈 민씨와 가례를 올렸다. 왕세자빈 민씨의 가례 때 의례복은 『순종순명후가례도감의궤』와 발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경우 동일인물의 동일행사이지만 문헌에 따라 원삼의 색과 소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가례도감의궤』에는 이전 왕세자빈과 같이 草綠禾花紬圓衫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발기에는 가례 절차에 따라 원삼의 색이 다르게 나타난다. 발기 『衣櫛20(966)』에는 삼간택 의례복 원삼으로 초록색, 즉 곁감은 초록수천만세직금, 안감은 다홍별문단을 사용하고 봉뿔을 매었으며, 발기 『衣櫛40(988)』에는 가례 때 의례복 원삼으로 자적색, 즉 곁감은 자적수천만세부금, 안감은 다홍별문사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왕세자빈 민씨는 가례를 올린 5년 후인 1887년 1월 15일에 관례를 행하였다(고종24년 1월 15일 계묘).

발기 『衣櫛65(1015)』와 『衣櫛66(1016)』에 나타난 왕세자빈 관례 때 의례복은 자적색 원삼이었다. 『衣櫛65(1015)』에는 紫의壽千萬世織金圓衫, 『衣櫛66(1016)』에는 紫의繡千萬世織金圓衫이라고 하여 ‘壽’와 ‘繡’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자적색 원삼이다. 왕세자빈이 5년 전에 입은 자적색 원삼과 차이가 있다면 가례 때 자적수천만세부금원삼을 입었던 반면 관례 때는 색과 문양은 같으나 직금원삼을 입었다는 것이다.

다만 『衣櫛66(1016)』의 제목 ‘大殿衣櫛單子’가 주의를 끈다. 김용숙(1963)에 따르면 발기는 대체로 두루마리로 되어 있으며 이것을 말아서 그 표면에 제목이 쓰여 있다. 왕, 왕비, 세자 등은 거처하는 궁의 위치에 따라 호칭에 정해지기도 했는데 이 제목에 나타난 ‘大殿’이란 ‘살아있는 왕의 거처’란 뜻으로 왕을 지칭하였고(신명호, 2005b) 왕비는 中宮, 中殿, 內殿이라 하였다(이영숙, 1982). 발기 『衣櫛次9(1092) 광무십년 음력 丙午(1906) 십이월 이십구일 대전의대차발기』는 ‘황운문단 용포차’ 등 고종황제의 복식을 기록하고 있다. 또 來17日 神貞王后 祥祭 때 상의원에서 보낸 왕과 왕비의 의대발기의 제목을 보면 각각 『神貞王后祥祭校是時大殿進御』, 『神貞王后祥祭校是時中宮殿進御』라고 되어 있다(김용숙, 1996). 그런데 『衣櫛66(1016)』의 경우에는 제목은 ‘대전’이라고 하였지만 내용은 전부 여자의 옷이므로 제목의 적합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현재까지는 내용이 『衣櫛65(1015)』와 대체로 동일하고 다른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왕세자빈 관례 의례복으로 인정되지만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한편 발기 『禮單·貝物7(1226)』에 의하면 왕세자빈 민씨 가례 때 적의와 당고의는 각 의례복의 색과 흉배의 색이 일치한 반면 원삼의 경우는 원삼은 초록색과 자적색인데 흉배는 아청색으로 제작되어 있어 역시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표 2).

이와 같이 왕세자빈 원삼은 『국혼정례』, 『상방정례』 등 제도 상에서는 일관되게 초록색이지만 발기에서는 절차에 따라 다르다. 『가례도감의궤』는 전대의 기록을 보고 기록하는 제도적 성격이 강하며 이에 비해 발기는 기록자가 내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보다 사실적 기록이라고 생각된다. 즉 세자빈 민씨는 의례에 따라 원삼의 색과 소재에 차이가 있어 삼간택에는 초록수

&lt;표 2&gt; 조선 왕세자빈 원삼

시 대	문 헌	착용자	의 례	내 용
1651	顯宗明聖后嘉禮都監儀軌	현종명성후	가 례	圓衫1 雲紋草綠匹緞35尺 內拱木紅綉20尺
1671	肅宗仁敬后嘉禮都監儀軌	숙종인경후	가 례	圓衫1 草綠雲紋匹緞35尺 內拱木紅綉20尺
1696	景宗端懿后嘉禮都監儀軌	경종단의후	가 례	圓衫1 草綠雲紋匹緞35尺 內拱木紅綉20尺
1718	景宗宣懿后嘉禮都監儀軌	경종선의후	가 례	圓衫1次 草綠花紋匹緞35尺 內拱木紅綉20尺
1727	眞宗孝純后嘉禮都監儀軌	진종효순후	가 례	圓衫1次 草綠花紋匹緞35尺 內拱木紅綉20尺
1749	國婚定例	嬪宮	가 례	草綠廣의圓衫1
1750	尙方定例	嬪宮	가 례	圓衫1次 草綠廣의圓衫35尺 內拱木紅綉20尺
1819	文祖神貞后嘉禮都監儀軌	문조신정후	가 례	圓衫1次 草綠禾花紬35尺 內拱木紅綉20尺
1882	純宗純明后嘉禮都監儀軌	순종순명후	가 례	圓衫1次 草綠禾花紬35尺 內拱木紅綉20尺
1882	衣櫛20(966) 壬午  천만세동궁마마가례시 [삼간택시]빈궁마누라의대발기	순종순명후	삼간택	초록슈천만세직금원삼 다홍별문단내작 봉띠
1882	衣櫛40(988) 壬午  천만세동궁마마가례시례 빈궁마누라의대발기	순종순명후	가 례	자덕슈천만세부금원삼 다홍별문사내작
1882	禮單·貝物7(1226) 壬午 千萬世東宮媽媽嘉禮時 龍胸背枕佩物件記(總房)	순종순명후	가 례	圓衫胸背 二次 靑毛漢緞
1887	衣櫛65(1015) 丙戌 臘月 嬪宮媽媽冠禮時 衣櫛件記 衣櫛66(1016) 丁亥 正月 冠禮時 大殿衣櫛單子	순종순명후	관 례	紫의繡千萬世織金圓衫

천만세직금원삼, 가례에는 자적수천만세부금원삼, 관례에는 자적수천만세직금원삼을 입었음을 알 수 있다.

### 3. 후궁

조선시대 후궁의 의례복 종류 역시 가례와 상장례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례 때 의례복은 「국혼정례」, 「상방정례」에 의해 露衣, 長衫, 圓衫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국혼정례」와 「상방정례」에는 淑儀 간택 및 가례 부분이 나오는데 이는 정식후궁으로 간택된 후궁의 가례를 기록한 것으로 후궁 중 유독 숙의 가례만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先朝의 故事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영조25년 11월 23일 무진). 숙의 원삼은 鵝青色이며 안감은 大紅廣紗를 대었다. 한편 「상방정례」는 숙의 가례시 원삼 일습을 살펴볼 수 있는 최초의 기록으로 '너울, 수식 가체, 흑각잠, 원삼, 대대, 상'이 그것이다.

가례 때 의례복으로 원삼을 착용한 실례로는 憲宗 후궁 慶嬪金氏가 있다. 현종은 1837년 첫 번째 왕비 효현왕후 김씨를 맞이하였으며, 1843년 효현왕후가 죽자 1844년 두 번째 왕비 명헌왕후 홍씨를 맞이하였고, 3년 후인 1847년 10월 21일 경빈김씨와 가례를 올렸다. 8월 4일 초간택, 9월 3일 재간택, 10월 18일 삼간택이 이루어졌고 10월 19일 책빈례, 10월 20일 납폐례, 10월 21일 동퇴연과 조현례, 11월 17일에 관

례를 행하였다. 경빈김씨 가례복은 「헌종비경빈김씨순화궁가례시절차」와 발기 「其他127(藏2-2708)」에 기록되어 있다. 이명은(2003)은 발기를 통해 경빈김씨 가례절차에 따른 의례복을 정리한 바 있다. 경빈김씨는 가례절차 중 삼간택, 책빈례, 조현례, 그리고 관례 때 초록색 원삼을 입었다. 즉 삼간택에 초록금수복자원삼을 입었는데 안감은 다홍단이며 초록단부금수자홍배를 부착하고 봉대를 매었다. 가라마리를 하고 자적주련문사금면사보를 덮었다. 책빈례와 조현례에는 초록직금원삼을 입었으며 다음 달 관례 역시 원삼을 착용하였다. 단, 「其他127(藏2-2708)」의 뒤쪽에는 '십일월이십륙일 관례시의복'이라고 하여 17일 외에 26일이라는 또다른 관례일이 나오는데 이 26일 기록에는 의례복으로 당의가 기록되어 있다.

한편 경빈김씨는 가례 다음 해인 1848년 대왕대비 순원왕후 육순 기념 진찬에 참석하였으며 이때 자적인화문사직금원삼을 착용하였는데 안감은 유청화문사였고 금치봉 홍배를 부착하였다. 국역헌종무신진찬의례(1848/2004)를 통해 경빈김씨의 지위를 고찰해 보면 후궁인 경빈김씨는 왕비와 함께 대왕대비에게 3작을 올리며 치사를 행한다. 비교 고찰을 위해 1828년 2월 순원왕후 40세 경축 진작례와 그 해 6월 순원왕후 탄신일 경축 진작례를 기록한 국역순조무자진작의례(1828/2003)를 살펴보면 진작례에 참여한 왕실 가족은 순조, 순원왕후, 효명세자, 세자빈, 명은공주, 숙

선옹주, 복은공주, 삼공주, 숙의박씨, 영은옹주, 청근현주 11명으로 세자와 세자빈, 공주, 옹주와 함께 후궁인 숙의박씨가 참여하였다. 궁중 연향 절차 중 진작과 치사를 올리는 순서를 통해 신분과 지위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치사의 순서는 왕세자[효명세자], 세자빈, 명은공주의 순이다. 즉 후궁인 숙의박씨는 연향에 참여하여 찬상을 받긴 하나 진작 치사는 하지 못하였다. 이와 비교할 때 무신진찬에서 현종의 후궁 경빈김씨는 왕비와 함께 대왕대비에게 3작을 올리는 등 왕비와 거의 대등한 자격으로 참여하였다. 따라서 경빈김씨의 원삼의 색이 가례 때의 초록색에서 자적색으로 달라진 것은 후궁으로 간택되었으나 왕의 총애를 입어 궁중 내 실질적 지위가 높았던 것과 관련이 있으며, 역으로 경빈김씨의 지위 상승을 통해 자적색 원삼이 초록색 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후궁의 상장례 때 의례복 제도는 찾아볼 수 없으나 실례인 현종 후궁 경빈김씨의 상장례 기록 『경빈예장소등록』을 통해 長衫과 圓衫이 사용됨을 알 수 있다. 경빈김씨는 1907년에 사망하여 장례가 진행되었다. 이 기록은 비록 대한제국 시대이지만 경빈김씨

는 사망 당시 71세였으며 6년 전 현종계비 효정왕후 철순기념 신축진찬 때도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復에 사용된 유의는 조선 왕조 때 착용한 옷이라고 생각된다. 장례절차에는 숨을 거둔 직후 지붕 위로 올라가 사망한 사람의 옷을 흔들며 세 번 부르는 復, 그리고 襲과 斂의 절차가 진행된다(신명호, 2002). 1907년 4월 21일에 差備 典守 李明鎭이 大廳北靄 위에 올라서 遺衣인 紅織錦緞付金圓衫을 흔들며 돌아오시기를 세 번 부르는 복을 행하였다. 또한 4월 23일에는 대렴을 하였으며 대렴의로는 鳳金雉胸背를 부착한 草綠織金緞付金圓衫에 多紅完子長春緞付金鳳帶를 매었다(표 3).

이와 같이 왕의 후궁은 아청색 또는 초록색 원삼을 착용하였으며 왕비에 버금가는 대우를 받았을 경우 자적색 직금원삼, 홍직금단부금원삼도 착용하였다.

#### 4. 대군부인 · 군부인

조선시대 중친의 처인 대군부인과 군부인 의례복 종류 역시 가례와 상장례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례 때 의례복은 『국혼정례』, 『상방정례』, 『길례요람』의

<표 3> 조선 후궁 원삼

시 대	문 헌	착용자	의례	내 용	
1749	國婚定例	淑儀	가례	圓衫次鴉青廣紗1匹 內拱大紅廣紗1匹	
1750	尙方定例	淑儀	간택	圓衫次鴉青廣紗1疋 內拱大紅紗1疋 大帶次 大紅廣의半幅8尺 付金次貼金1束	
			가례	圓衫次鴉青廣紗壹匹 內拱大紅廣紗壹疋	
1847	其他127(藏2-2708) 녕미가례시일기	현종경빈김씨	삼간택 1847. 10. 18	봉대, 초록단부금슈자홍배 초록금슈복자원삼, 다홍단내작 일작	
			책빈일 1847. 10. 19	초록직금원삼, 다홍단내작 일작 금치봉홍배	
			조현례 1847. 10. 21	직금원삼	
			관례 1847. 11. 17(또는 26일)	초가의-원삼, 재가의-원삼, 삼가의-원삼	
1848			무신축진연밋치사의복 1848. 3. 17-19	자덕년화문사직금원삼 뉴청화문사내작 일작 금치봉 홍배	
1847	憲宗妃慶嬪金氏 順和宮嘉禮時節次	현종경빈김씨	삼간택의복 1847. 10. 18	草綠金壽福字元衫, 多紅緞內作	
			가례시의복금침 1847. 10. 21	草綠織金元衫, 多紅漢緞內作	
1848			戊申春進宴及致詞 1848. 3. 17-19	紫의鱗花紋紗織金元衫, 柳青花紋紗內作	
1907	慶嬪禮葬所謄錄	현종경빈김씨	상장례	復	差備典守李明鎭陸大廳北靄上以遺衣 紅織錦緞付金圓衫三呼復設遺飯牀于北庭
				大斂	圓衫草綠織金緞付金 胸襟鳳金雉 帶多紅完子長春緞付金鳳

해 大紅廣的單露衣와 大紅廣的長衫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례로 1603년 선조의 아들 의창군 길례 때 군부인의 의복 감을 준비하는 내용에도 노의와 장삼 감으로 花紋紅段 2필이 포함되어 있을 뿐으로 원삼은 확인되지 않는다(선조36년 3월 18일 갑술).

1847년 흥선군(興宣君)부인은 헌종과 후궁 경빈의 가례 때 종친의 처로서 초록색 원삼을 착용하였다. 흥선군은 추존 장조[사도세자]의 후궁인 숙빈임씨의 2남은신군의 손자로서 1843년에 흥선군에 봉해졌으며 따라서 그의 처는 군부인이 되었다. 『헌종비경빈김씨순화궁가례시절차』와 발기 『其他127(藏2-2708)』에 의하면 경빈김씨 가례 때 궁중에서 흥선군부인에게 원삼을 보냈다. 헌종과 흥선군은 모두 추존 장조의 자손으로 헌종은 4대손, 흥선군은 3대손이었으므로 헌종보다 흥선군의 항렬이 높다. 흥선군부인은 1848년 3월 대왕대비순원왕후 육순 진찬 때도 내외빈 명단에 흥완군부인과 함께 1순위로 초청되었으나 상을 당하여 참석하지 못한 일이 있어 종친으로서 왕실행사에 참여해 왔음을 알 수 있다(국역헌종무신진찬의궤, 1848/2004). 경빈김씨 가례 때 흥선군부인이 궁에서 받은 원삼은 초록색으로 걸감은 草綠鄉職이고, 안감은 多紅漢緞이며, 鳳帶가 포함되어 있다.

의화군부인은 1893년 본인의 가례와 1894년 사월팔일 춘절에 초록색 원삼을 착용하였다. 가례 의례복의 경우 문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의화군은 고종의 아들로 1891년 의화군에 봉해졌으며 1893년 10월 29일 참봉 김사준의 딸 김덕수와 길례를 올렸다(고종30년 10월 29일 정축). 의화군부인은 10월 20일

삼간택을 거쳐 10월 21일 납채, 10월 27일 납폐, 10월 29일 친영과 동뢰연, 10월 30일 조현례를 올렸다. 의화군의 길례를 기록한 『의화군가례등록』에는 『국혼정례』 및 『길례요람』과 마찬가지로 의례복으로는 노의와 장삼만 보이지만 발기 『禮單·貝物23(1244)』, 『衣服18(1037)』에 의해 노의, 장삼과 함께 원삼이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다. 발기 『禮單·貝物23(1244)』은 제목에 행사 주체가 표시되지 않았으나 이명은(2003)에 의해 의화군부인의 가례인 것이 확인되었다. 의화군부인은 삼간택에 초록직금전자원삼에 다홍공단봉대를 매고 머리에는 칠보족두리를 썼으며, 가례 때 역시 초록직금원삼을 입었는데 안감은 다홍별문단내작이었다. 또한 『衣服28(1047)』에 의하면 의화군부인은 이듬해 춘절에도 역시 초록사직금원삼을 입었다.

같은 군부인임에도 불구하고 흥선군부인이 초록색 향직원삼을 입었던 것과 달리 의화군부인이 초록색 직금원삼을 착용하게 된 배경을 고찰해 보면, 군부인의 부친 김사준은 인목대비 친정 가문의 후손으로 왕실과의 혼례를 하지 말라는 인목대비의 당부에 따라 의화군 이강과의 길례를 정중히 거절했지만 당시 왕비였던 민비는 ‘김덕수의 용모와 부덕을 사랑하여’ 매우 마음에 들어했다고 한다(정범준, 2006). 『衣服28』 사월팔일 의복의 경우에도 『순화궁접초』의 사월팔일 의복과 비교할 때 종류가 많고 화려하다. 이명은(2003)도 같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즉 의화군부인은 당시 내명부 최고 수장인 민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삼간택부터 가례, 사월팔일까지도 직금을 한 화려한 초록 원삼을 입게 된 것이다.

<표 4> 조선 대군부인·군부인 원삼

시 대	문 헌	착용자	의 례	내 용
1847	其他127(藏2-2708) 덩미가례시일기	흥선군부인	경빈가례 1847. 10. 21	초록향직원삼, 다홍한단내작, 봉대
1847	憲宗妃慶嬪金氏 順和宮嘉禮時節次	흥선군부인	경빈가례 1847. 10. 21	草綠鄉職圓衫, 多紅漢緞內作, 鳳帶
1893	禮單·貝物23(1244) 패물의대발기	의화군부인	삼간택 1893. 10. 20	초록직금전자원삼, 다홍공단봉대 칠보족두리 일
1893	衣服18(1037) 십월길례시부인의복발기	의화군부인	가 례 1893. 10. 29	초록직금원삼 다홍별문단내작
1894	衣服28(1047) 甲午사월팔일춘절군부인의복발기	의화군부인	사월팔일 1894. 4. 8	초록사직금원삼
1898	禮葬廳贈錄	여흥부대부인	상장례	復 差備洪圭夏陞自大廳北霽上以遺衣鴉青桃榴紗付金圓衫三呼復設遺飯牀于北庭 大斂 圓衫紫的庫緞付金裡松花色貢緞內縐藍貢緞袖口藍金縐黃金縐白貢緞付金

한편 군부인이었다가 부대부인으로 신분이 높아짐에 따라 원삼의 색이 달라진 예를 살펴볼 수 있다. 흥선군부인은 남편 흥선군이 흥선대원군이 되면서 여흥부대부인이 되었다. 대원군이란 왕위를 계승할 적자손이나 형제가 없어 종친 중에서 왕위를 이어받을 때 신왕의 생부를 호칭하던 말로 흥선군은 1863년 철종이 죽고 조대비에 의해 고종이 즉위하자 대원군에 봉해졌다. 여흥부대부인은 1898년에 사망하여 장례가 치러졌으며 흥선대원군과 여흥부대부인 민씨의 장례 기록인 『예장청등록』에 부대부인의 원삼이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 역시 대한제국 시기이지만 장례에 사용된 의복은 조선 왕조 때 착용한 옷이라고 생각된다. 여흥부대부인의 혼을 부르는 復을 위해 遺衣로서 鴉靑桃榴紗付金圓衫을 혼들었으며, 대렴에는 紫的庫緞付金圓衫이 사용되었다. 자적고단부금원삼의 안감에는 藍貢緞으로 선을 두른 松花色貢緞을 사용하였으며 소매끝에는 藍색과 黃金색 끝동과 白貢緞 한삼에 付金을 하였다(표 4).

5. 공주 · 옹주

조선시대 공주 · 옹주 의례복의 종류 역시 가례와 상장례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례 때 의례복은 『국혼정례』와 『상방정례』에 의해 大紅廣의單露衣와 大紅廣의袂長衫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길례요람』에도 공주와 옹주의 의례복은 大紅廣의單露衣와 大紅廣의袂長衫이고 근주와 현주의 의례복은 大紅廣의單露衣이다. 제도와 일치되는 실례로 1772년 추존 장조와 경빈씨 딸 청근현주의 『청근현주가례의궤』에 의하면 현주의 가례용 의복 역시 大紅廣의單露衣였으며, 추존 장조와 혜경궁 홍씨의 딸 청연군주묘에서 출토된 의례복은 이성희(2003)에 의해 노의로 논증된 바 있다.

그러나 공주 · 옹주의 상장례 기록과 실제 유물을 통해 가례 때 의례복으로 초록색 원삼을 착용하였음이

증명된다(표 5). 순조의 딸 명은공주의 경우 가례 당시 기록과 상장례 기록에 보이는 의례복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1817년 명은공주의 가례 기록인 『명은공주 가례등록』에 보이는 의례복은 역시 大紅廣의單露衣와 大紅廣의袂長衫이다. 그런데 1833년 명은공주가 사망했을 때 기록인 『명은공주방상장례등록』에는 공주의 혼을 부르는 복에서 ‘가례 때 입었던 草綠織金緞圓衫’을 혼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즉 명은공주가 1823년 동녕위 김현근에게 하가할 때 착용한 것으로, 소렴에도 이 草綠織金緞圓衫을 사용하였다. 안감은 眞紅雲紋大緞이며 鳳金繡胸背를 부착하였다. 명은공주는 순조와 순원왕후 김씨의 딸이자 효명세자의 누이로서 1828년 어머니 순원왕후 40세 축하 잔칫에서 왕세자(효명세자), 세자빈 다음으로 치사를 올렸었다(국역 순조무자진작의궤, 1828/2003). 역시 직금단원삼을 착용하게 된 배경인 것이다.

현존하는 덕은공주와 화순옹주의 유물에서도 공주와 옹주의 가례복으로 착용된 녹색 원삼을 확인할 수 있다. 덕은공주는 순조의 딸이자 명은공주의 동생으로 1837년 남녕위 윤의선에게 하가할 때 의례복으로 입었던 녹색 원삼이 남아 있다. 원삼의 걸감은 연두색에 壽자가 금박된 大花紋紗이고 안감은 紅本紗이나 안감은 없어졌다(석주선, 1996). 화순옹주는 영조의 후궁 정빈이씨의 딸이며 효장세자의 동생으로 1756년 월성위 김한진에게 하가하였으나(영조8년 10월 14일 무진) 2년 후에 사망하였다(영조34년 1월 17일 갑진). 화순옹주 원삼은 걸감은 초록색 壽福자 도류불수문단이며 안감은 다홍색 연화당초문단이고 帶는 홍색 비단으로 鳳문을 금박하였다(석주선, 1996).

6. 내인

조선시대 내인 의례복의 종류는 왕실 가례 및 행차 기록과 진연을 비롯한 왕실 연향 기록에서 찾아볼 수

<표 5> 조선 공주 · 옹주 원삼

시 대	문 · 헌	착용자	의례	내 용
1833	明溫公主房喪葬禮譜錄	명은공주	상장례	嘉禮所着圓衫用之 草綠織錦緞圓衫
			小殮	草綠織錦緞圓衫 眞紅雲紋大緞內的 鳳金繡胸背
1837	衣	덕은공주	가례	연두색 壽금박大花紋紗 원삼 紅本紗 안감(없어짐)
1756	衣	화순옹주	가례	초록색 壽福자도류불수문단 다홍색 연화당초문단 안감 홍색 비단 鳳帶



있다(표 6). 가례 기록인 『가례도감의례』, 『국혼정례』, 『상방정례』를 통해 鴉靑색, 黑색, 紅색, 黃색의 長衫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내인이 본인의 관례 때 의례복으로는 연두에 가까운 남송색 원삼을 입었음을 상궁 증언으로 알 수 있다(김용숙, 1996).

1811년 순조는 元子從衛를 계기로 각 殿宮의 행차 의식인 動駕儀節을 새로이 정비하게 하였다. 왕대비전[정조왕비 효의왕후], 중궁전[순원왕후], 혜경궁[정조 친모]의 『각전궁동가의절』, 정조 후궁이자 순조의 친모인 가순궁 수빈씨의 『嘉順宮動駕儀節』, 정조 후궁인 경수궁 화빈윤씨의 『慶壽宮陪衛儀節』이 그것이다. 『경수궁배위의절』의 경우 규장각 해체에 의하면 정조년간 편찬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각전궁동가의절』에 각 전궁의 동가의절이 거의 임시적으로 稟帖에 의해 행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새로이 정비하라고 한 것으로 보아 『경수궁배위의절』 역시 이때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록에 의하면 각 전 시위 내인의 의례복으로 초록색과 아청색 원삼을 착용하였다. 내인의 이름은 왕대비전부터 가순궁까지는 시위내인이라 하였고, 경수궁의 경우에만 배위내인이라 하였다. 내인은 행차 때 위치에 따라 前侍衛兒內人, 中侍衛兒內人, 後侍衛兒內人으로 구분되는데 전과 후 시위아내인은 草綠紗圓衫에 紫的金帶를 매고 紅紗上裳을 입고 鴉靑紗羅兀을 두르고, 중 시위내인은 鴉靑紗圓衫에 藍緞金帶를 매고 紅紗上裳과 水禾紬末袴를 입고 九珠羅羅兀을 두른다.

한편 궁중의 각종 연회 기록인 진찬 및 진연의례에 시위각차비의 의례복으로 원삼이 기록되어 있다(김경

실, 2003). 1828년 순원왕후 40세를 기념하는 진찬 기록인 『純祖戊子進爵儀軌』부터 1902년 11월 고종 51세 및 즉위 40년을 기념하는 진연 기록인 『高宗壬寅進宴儀軌』까지 시위각차비 즉 내인들의 직함에는 약간의 차이가 보이기도 하지만 의례복은 동일하게 黑紗圓衫과 草綠圓衫임을 알 수 있다. 지면관계상 1829년 순조의 사순 생신 및 채위 30년을 기념하는 진찬 기록인 『純祖己丑進饌儀軌』의 예를 들어 살펴보면 啓請前導尙宮 及 都副執事 尙寢 典言 司贊 贊笏 典贊 典燈 女官은 於于味를 하고 藍色裳 위에 藍紗裳을 입고 의례복으로 三色綠廣袖가 달린 黑紗圓衫에 藍色 金繡帶를 매고 紅色 溫鞋를 신었으며, 侍衛 贊請 承引 前引 尙宮 及 尙食 尙飾 尙贊 尙記 典飾 尙引 司引 典賓 典



<그림 1> 기축진찬병풍  
 자료출처: 박정혜. (2000).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연구. p. 476.

<표 6> 조선 내인 원삼

시 대	문 헌	착용자	의 례	내 용
1811	各殿宮動駕儀節	前 侍衛兒內人一雙	행 차	草綠紗圓衫 紫的金帶
		中 侍衛內人八雙	행 차	鴉靑紗圓衫 藍緞金帶
		後 侍衛兒內人一雙	행 차	草綠紗圓衫 紫的金帶
1811	嘉順宮動駕儀節	前 侍衛兒內人一雙	행 차	草綠紗圓衫 紫的金帶
		中 侍衛內人八雙	행 차	鴉靑紗圓衫 藍緞金帶
		後 侍衛兒內人一雙	행 차	草綠紗圓衫 紫的金帶
1811	慶壽宮陪衛儀節	前 陪衛兒內人一雙	행 차	草綠紗圓衫 紫的金帶
		中 陪衛內人四雙	행 차	鴉靑紗圓衫 藍緞金帶
		後 陪衛兒內人一雙	행 차	草綠紗圓衫 紫的金帶
1829	純祖己丑進饌儀軌	啓請前導尙宮 及 都副執事 尙寢 典言 司贊 贊笏 典贊 典燈 女官	진 찬	黑紗圓衫 三色綠廣袖 藍色錦繡帶
		侍衛 贊請 承引 前引尙宮 及 尙食 尙飾 尙贊 尙記 典飾 尙引 司引 典賓 典膳의 各差備女官	진 찬	草綠圓衫 三色綠廣袖 藍色錦繡帶

膳의 各差備女官은 於于味를 하고 藍色裳 위에 紅紗裳을 입고 의례복으로 三色綠廣袖가 달린 草綠圓衫을 입고 藍色 金繡帶를 매고 紅色 溫鞋를 신었다. 한편 이 기록을 그림으로 볼 수 있는 <순조기축진찬병풍>에 의하면 내인들의 원삼의 색으로 초록색과 청색이 확인된다(그림 1). 즉 『진찬의궤』와 『각전궁동가의절』 기록을 종합해 볼 때 내인의 원삼 색으로 초록색, 아청색, 흑색이 등장한다. 그러나 기록에는 흑색임에도 불구하고 병풍 그림에는 청색으로 그려져 있어 제도상 흑색일지라도 실제로 청색을 사용한 예를 확인할 수 있다.

## V. 결 론

조선시대 궁중 의례복 제도로서 또는 행사 복식으로 등장한 원삼 기록을 신분별로 분석함으로써 신분에 따른 원삼 색 체계를 재정립하였다. 원삼 착용자의 신분체계는 왕비, 왕세자빈, 후궁, 대군부인·군부인, 공주·옹주, 내인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왕비의 원삼은 가례 제도에는 나타나지 않으며 상장례 기록 중 유일하게 1600년 선조비 의인왕후의 외재궁의대로 사용된 기록이 남아 있으며 大紅廣紗元衫이 사용되었다. 왕세자빈의 원삼은 가례 때 의례복으로 초록색 원삼이 착용되었다. 소재의 경우 경종단의 후(1696)까지는 雲紋匹緞이었다가 경종선의후(1718)와 진종효순후(1727)는 花紋匹緞으로 바뀌었다. 『국혼정례』, 『상방정례』에는 草綠廣의圓衫으로 제도화되었으며, 문조신정후(1819)와 순종순명후(1882) 가례 때는 草綠禾花細圓衫이었다. 1882년 순종 왕세자 시절 왕세자빈 민씨는 삼간택에 초록수천만세직금원삼, 가례 때 자적수천만세부금원삼, 1887년 관례 때는 紫의繡千萬世織金圓衫을 착용하였다. 후궁의 원삼은 『국혼정례』, 『상방정례』에 숙의의 간택 및 가례 때 의례복으로 鵝靑廣紗원삼이 제도화 되어있다. 1847년 현종 후궁 경빈김씨는 삼간택에 초록금수복자원삼, 가례일에 초록직금원삼을 입었으며, 관례 때 역시 초가부터 삼가까지 이 원삼을 입었다. 그러나 이듬해 1848년 3월 무신친찬 때 대왕대비 순원왕후에게 치사를 올릴 때는 紫의鱗花紋紗織金元衫을 입었으며, 1907년 상장례에는 紅織錦緞付金圓衫으로 복을 하고 草綠織金緞付金圓衫으로 대렴을 하였다. 이는 경빈김씨가 비록 후궁이었지만 왕비와 대등한 대우를 받았음에 기인한 것이다. 대군부인·군부인의 원삼은 제도상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1847년 흥선군부인이 현종과 후궁 경빈김씨 가례 때 초록향직원삼을 입었으며, 1893년 의화군부인이 삼간택에 초록직금전자원삼, 가례일에 초록직금원삼, 1894년 4월 8일 춘절에 초록사직금원삼을 착용하였다. 한편 흥선군부인은 남편 흥선군이 흥선대원군이 되면서 여흥부대부인이 되어 1898년 장례 때 鵝靑桃榴紗付金圓衫으로 복을 하고, 紫의庫緞付金圓衫으로 대렴을 하였다. 공주·옹주의 원삼 역시 제도상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1833년 명은공주 상례 때 복과 소렴에 가례 때 착용했었던 草綠織錦緞圓衫을 사용하였던 내용으로 가례 때 원삼을 입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1837년 덕은공주의 연두색 壽금박大花紋紗 원삼과 1756년 화순옹주의 초록색 壽福자도류불수문단원삼을 통해 공주·옹주가 가례 때 원삼을 입었음이 확인된다. 내인의 원삼은 왕실의 각종 행사 기록에서 확인된다. 1811년 각 殿宮의 행차 의식에서 草綠紗圓衫과 鵝靑紗圓衫을, 궁중의 각종 연회에서 黑紗圓衫과 草綠圓衫을 착용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후사원삼의 경우에도 1829년 <순조기축진찬병풍>을 통해 청색임이 확인되었다. 즉 왕비는 홍색, 왕세자빈은 초록색과 자적색을 입었다. 후궁은 아청색과 초록색을 입었으며 왕의 총애를 받았던 후궁은 자적색과 홍색을 입기도 하였다. 군부인의 원삼은 초록색이었으며 군부인이었다가 부대부인으로 지위가 상승한 경우 아청색과 자적색을 입었다. 공주·옹주는 초록색이며, 내인은 초록색, 아청색, 흑색을 입었다.

위와 같이 원삼의 제도와 착용 실례의 비교 고찰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궁중 의례복의 제도와 시행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첫째로는 원삼의 착용 대상에서의 규정과 실제 착용자의 차이로서, 착용 범위가 제한되었던 제도와는 달리 왕비부터 내인까지 거의 모든 신분의 궁중 여인들이 원삼을 착용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가례도감의궤』, 『국혼정례』, 『상방정례』 등에 의하면 원삼은 왕세자빈과 후궁 숙의의 경우에만 가례 때 의례복에 들어있었다. 즉 왕비, 대군부인·군부인, 공주·옹주, 내인의 의례복 제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연향 관련 의례, 상장례 기록, 발기, 행차 기록, 현존 유물 등을 통해 원삼의 착용 범위는 보다 넓었음이 확인되었다. 왕비는 상장례에서 외재궁 의대로 사용된 기록이, 군부인과 공주·옹주의 경우에도 상장례 기록과 발기류와 현존 유물을 통해 원삼이 착용되었

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문제는 궁중 의례복 각 품목에 대한 세부연구와 전 품목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원삼에 사용된 소재에서의 규정과 시행의 차이로서 근검절약 이념에 의해 제정된 제도와는 달리 화려함을 추구했던 조선시대 궁중 복식문화를 볼 수 있다. 17세기 후반 왕세자빈 『가례도감의궤』에 나타난 원삼의 소재는 雲紋 또는 花紋匹緞이었다. 18세기 중반 영조가 『국혼정례』, 『상방정례』 등을 제정한 배경은 왕실 혼례식의 과다한 사치와 낭비를 방지하여 국가의 비용을 줄이기 위함이었다. 『국혼정례』에 박문수가 영조의 전지를 받들어 쓴 <어제국혼정례권제>에 따르면 정례를 만드는 이유는 비용을 줄이는데 있다고 하였으며(『국역국혼정례, 1749/2007』) 그 대표적 항목이 바로 문단[무늬있는 비단]이었다. 즉 ‘왕비나 빈궁[왕세자빈]의 가례 때 입는 범복은 종전에 문단을 향직[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직물]으로 대신하고 대군, 왕자, 공주, 옹주 가례 범복은 종전에 문단을 廣[무늬없는 폭 넓은 비단]으로 대신한다. 紋紗[무늬 있는 비단]는 모두 廣紗[폭이 없는 비단]으로 대용하고 자능단[자주색 능단]은 토주[우리나라에서 나는 명주]로 대용한다’고 범례를 들었다. 영조의 검약 의지는 1759년 자신과 계비 정순왕후의 가례 때 몸소 실천하였으며(신병주, 2001), 1762년 왕세손[후의 정조] 가례 때도 ‘세손빈 간택일을 다음 달 그믐날로 정하였는데 處子의 服色은 풍성하고 사치하게 하지 말고 근본을 단정하게 하는 뜻을 본받게 하라’고 하며 ‘근자에는 사치 풍조가 날로 성행하는 때이므로 마땅히 왕궁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전교를 내렸다(정조호의후가례도감의궤, 1762/2006). 따라서 17세기 후반 『가례도감의궤』에서 운문필단 또는 화문필단이었던 왕세자빈의 원삼 소재가 『국혼정례』 제정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왕세손빈 가례에 적용되어 1762년 『정조호순후가례도감의궤』 원삼은 草綠廣의로 바뀐 것이다. 그 후 1819년 『문조신정후가례도감의궤』와 1882년 『순종순명후가례도감의궤』 원삼은 다시 草綠禾花紬로 바뀌었는데 이 역시 “자능단[자주색 능단]은 토주[우리나라에서 나는 명주]로 대용한다”고 한 『국혼정례』 원칙에 따라 필단이 紬로 바뀐 것이다. 속의의 鴉靑廣紗圓衫의 경우에도 ‘紋紗는 모두 廣紗로 대용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전에는 紋紗로 만들었던 것이 바뀐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궁중 원삼의 소재를 고찰할 때 영조의

근검절약 의지는 오래가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1756년 화순옹주 가례 때 초록색 壽福자 도류불수 문단이 사용되었으며, 1823년 명은공주 가례 때 織錦緞圓衫, 1837년 덕은공주 가례 때 연두색 壽금박大花紋紗 원삼, 1847년 후궁 경빈김씨 가례 때 금수복자 원삼, 직금원삼, 1848년에 鱗花紋紗織金元衫이 확인된다. 특히 1882년 순종 세자 당시 왕세자빈 민씨 가례 관련 발기는 현존하는 발기 중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원삼 역시 수천만세부금원삼, 수천만세직금원삼 등 최고의 권위를 표시하듯 소재의 화려함으로 표현하고 있다. 1893년 의화군부인 역시 당시 내명부 최고수장인 민비의 사랑을 받아 1893년 가례와 이듬해 사월팔일까지도 직금전자원삼을 입었다. 1907년 경빈김씨는 상례 중 복을 할 때 직금과 부금을 함께 넣은 紅織錦緞付金圓衫이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궁중에서 실제로 착용된 원삼 소재는 화문단, 부금, 직금 등으로 확인되어 조선시대 궁중 의례복의 화려함을 알 수 있다.

이상 조선시대 궁중 원삼의 신분별 색 체계를 규명함에 있어 실제 착용자의 궁중 내 신분과 위상을 고려한 고찰을 통해 보다 사실적 규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원삼의 제도와 착용 실례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원삼의 착용 범위가 제도와 달리 왕비부터 내인까지 확대 시행되었다는 것과 원삼의 소재에서 제도와는 달리 화려했던 궁중 복식문화를 살펴 보았다. 추후 대한제국 궁중 원삼에 대한 계속 연구를 통해 신분의 변화에 따른 원삼의 색 변화를 고찰하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광림. (1976). 조선시대에 있어서의 여자예복에 관한 연구 (I)-원삼을 중심으로. *인천교대논문집*, 11, 10.
- 고복남. (1986). *한국전통복식사연구* (개정판). 서울: 일조각.
- 국역고종순종실록. (1998). *조선왕조실록*. 자료검색일 2009, 2. 1 ~ 20, 자료출처 <http://sillok.history.go.kr>
- 국역국혼정례. (1749).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서울: 국학자료원.
- 국역순조무자전작의궤. (1828). 이의강 책임번역 (2003). 서울: 보고사.
- 국역헌종무신전찬의궤, 권1. (1848).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2004). 서울: 민속원.
- 김경실. (2003). *조선시대 궁중 전연 복식*. 서울: 경춘사.
- 김용숙. (1963). 궁중撥記의 연구. *향토시론*, 18, 82-83.
- 김용숙. (1996). *조선조 궁중풍속 연구* (개정판). 서울: 일지사.

- 김집. (1574-1656). *신독재전서*, 제13권: *의례문해속 상례*.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 김종준. (2004). *규장각소장의쾌해제집*, 2: 1843년(현종9) 효현왕후의 승하와 효현왕후빈전혼전도감의쾌. 서울: 서울대학교규장각.
- 문화재재단 *중요민속자료*, 하권. (1986). 서울: 문화공보부 문화재단리국.
- 박성실. (1992). *조선전기 출토복식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성실. (2006). *난사석주선관장10주기기념논총 한국의 복식 문화사: 출토복식을 통해보는 조선시대 여성복식의 시대별 특징*. 서울: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
- 박정혜. (2000).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연구*. 서울: 일지사.
- 상방정례. (1750). 한국학중앙연구원 국학진흥연구사업추진위원회 (2008).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 석주선. (1996). *쑈* (개정판). 서울: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 신명호. (1999). *조선조기 왕실 편제에 관한 연구의친제의 정착을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 신명호. (2002). *조선 왕실의 의례와 생활 궁중문화*. 서울: 들베개.
- 신명호. (2005a). *궁녀*. 서울: 시공사.
- 신명호. (2005b). *조선시대 왕실문화 조선의 왕*. 서울: 가람기획.
- 신병주. (2001). *66세의 영조, 15세 신부를 맞이하다*. 서울: 효형출판.
- 유희경, 김미자, 조효순, 박민여, 신혜순, 김영재, 최은수. (2001). *문화관광부한국복식문화2000년 조직위원회: 우리옷이천년*. 서울: 미술문화.
- 유희경. (1975). *한국복식사연구*. 서울: 삼성인쇄주식회사.
- 이금익. (1736-1806). *국역연려실기술*, 별집 제2권.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97). 서울: 민족문화추진위원회.
- 이덕일. (2005). *조선왕 독살사건*. 서울: 다산초당.
- 이명은. (2003). *궁중발기에 나타난 행사 및 복식연구 장서각소장품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성희. (2003). *조선후기 노의에 관한 연구 청연군주 출토복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영숙. (1982). 조선초기 내명부에 대하여. *역사학보*, 96, 98.
- 전정희, 박현정. (1999). 청색 원삼에 관한 연구. *한복문화*, 2(1), 5-19.
- 정범준. (2006). *제국의 후예들*. 서울: 황소자리출판사.
- 정조효의후가례도감의쾌, *머리말*3. (1762). 서울대학교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6). 서울: 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 국역조선왕조실록. (1995). *조선왕조실록*. 자료검색일 2009, 2. 1 ~ 20. 자료출처 <http://sillok.history.go.kr>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고문서집성*. 12-13권.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